

# Autobiographical Writing for Faith Education of the Elderly

Hyang-Sook Park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utobiographical writing as an 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lderly.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First, after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on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lderly,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studies suggest the need for integrated Christian elderly education and church elderly ministry, and there is a need for a study that suggests a curriculum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field. Second, there are two educational objectives derived from Fowler's study of faith. One is to describe, analyze, and reconstruct the three elements that make up the content of faith: centers of value, image of powers, and central stories. Second, to explore vocation through a life of pilgrimage in response to the call to partnership with God. Third, autobiographical writing involves an approach based on the tradi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nd should be oriented toward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based on descriptive, native, holistic, lived-experience, pathic, interpretive, and open-ended principle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utobiographical writing will contribute to helping the elderly experiencing crises of despair and anxiety to integrate the meaning of their lives through the holistic expression of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o helping socially isolated older adults to feel connected to society, and to helping them to envision and imagine the future through the present act of revealing their voice. It is hoped that autobiographical writing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onversations through retrospection and confession of faith of the elderly.

## Key Words

The elderly, Faith, Faith education, Aging, Autobiographical writing

## 노년기 신앙교육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박향숙\*\*  
(서울신학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첫째, 노년기 기독교교육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통합적 기독교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교회 노인목회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파울러(J. W. Fowler)의 신앙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앙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가치의 중심, 힘의 이미지, 중심 이야기를 기술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례의 삶을 통해 소명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자전적 글쓰기는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회고하기를 통한 체험의 재해석, 고백적 글쓰기를 통한 자기 이해, 자기 목소리 공유를 통한 연대와 수용의 경험이다. 또한 자전적 글쓰기는 질적 연구의 전통에 기반한 접근으로 기술적, 태생적, 총체적, 체험적, 공감적, 해석적, 개방적 원리에 기반한 교수-학습 원리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 자전적 글쓰기는 절망과 불안의 위기를 겪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통합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이 사회와의 연대감을 갖게 되며,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현재적 행위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고 상상하도록 공헌할 것이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노년기의 신앙의 회고와 고백을 통한 대화의 현장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 〈 주제어 〉

노년기, 신앙, 신앙교육, 나이 들어감, 자전적 글쓰기

□ 2023년 11월 26일 접수, 2023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11.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신학대학교 교육혁신원 조교수, pbs4u@stu.ac.kr

## I. 들어가는 말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뉘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였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2019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사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찰의 고문으로 남편을 잃고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게 된 아들과 억척스러운 삶을 살다가 70대에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주인공의 고백이자 유언이다. 작가는 남편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 신체적 노화와 기억의 상실, 회한과 고독감 등을 겪었음에도 지나온 삶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수용한 노년기 여성의 자전적 고백을 통해 후회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노년기를 위로하고 응원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분리,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적막감, 내적 자아에게서 거절당하는 자아상실로 인한 두려움을 수반한다(Nouwen & Gaffney, 2014). 노인에게 관한 많은 연구는 노인들이 신체적 쇠퇴와 건강의 상실로 인한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의 사회적 유리(disengagement)로 인한 소외와 고립감, 삶에 대한 회한과 우울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김미경, 2012; 김정준, 2009). 점차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고립되어가며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커지는 노년기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삶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며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UN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에 18.4%, 2025년에는 20.6%(통계청, 2023)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를 포함한 성인기 생애과정 확대되면서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대안적 기독교교육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노년기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적 기독교교육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노년기 관련 기독교교육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파울러

의 연구를 중심으로 노년기 신앙교육의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노년기 신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사례와 함께 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신앙교육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 II. 노년기를 위한 기독교교육 연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부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최근까지 노인(고령)을 다룬 기독교교육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었다. 임창호(2019)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06-2018년 3개 기독교교육 학술지(기독교교육논총, 기독교교육정보, 복음과교육)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상황적 영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을 때, 노인(고령)을 다룬 논문이 21편으로 통일(평화), 문화, 다문화, 환경(생태)과 함께 최근 한국 사회의 핵심 관심사로 등장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노인, 노년, 고령을 주제어로 검색한 연구논문 중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연구자가 선택한 검색어로 한정하여 검색하는 과정 중 누락된 연구물이 있을 수 있기에 선행 연구 목록의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표 1> 노년기 기독교교육 선행 연구(논문 게재 연도순)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결과
김정준(2009)	노인 기독교교육의 통합적 접근-선교·교육·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노인의 전인적 성숙을 위한 교육적 차원과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차원과 총체적 관계 내 존재론적 평안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을 통합한 노인교육 모델을 제안
윤갑수(2010)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교회 노인교육의 한계(설교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빈약, 전문성 부족, 행사 중심)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 면담연구를 통해 교회 노인교육활성화방안 제안
이원일(2010)	죽음에 대한 노년기 기독교교육	죽음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및 과정 제안 노화과정, 심리적 고독, 죽음 교육, 사회적 역할
이정관(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돌봄의 과제	상실, 빈곤, 영적 상실로 인한 고통 등 노인의 전인적 필요를 채우는 포괄적인 사역에 대한 목적 의식 필요
이은성(2014)	고령화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기독교 노인 죽음준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제안
김진영(2015)	탈인습적 노년기 교육과정 연구	노년에 대한 인습적 이해를 벗어나 탈인습적 역량인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에 기초한 탈인습적 교육내용과 학습과정 제안

오경석(2015)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 개발	Birren & Deutchman(1991)의 노인을 위한 지시적 자서전 집단 모형을 기반으로 한 자서전쓰기 교회 프로그램
이은성(2016)	고령화 한국 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연계 노인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회정책 제안
김정준(2017)	21세기 한국 사회와 노인 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21세기 주변으로 몰린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을 위해 고독에서 연대를 지향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으로 전환하고, 수동적 생존에서 참여적 주체로 전환하도록 돕는 목회를 제안
김정희(201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연구	교회가 연령주의를 극복하고 연령통합적 시각에서 노인을 포함한 전세대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과 환경을 전환할 것을 제안
문수경(2018)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무연사와 탈인습적 교육과정 연구	탈인습성의 주요 원리인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에 바탕을 둔 연대성, 비위계성, 자아통합성을 중시하는 탈인습적 교수-학습과정 제안
장신근(2018)	통전적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의 모색-Fin-Telos 모델을 중심으로	성서적, 신학적 죽음 이해, 노인 이해, 죽음교육 사례 등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 모델 제안
조은하(2019)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교육생태학적 관점의 기독교교육	활기찬 노년기를 위해 교육생태학적 접근, 몸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지적 차원의 유연성, 소명의 재발견, 관계를 통한 의미 발견, 영적 안영 추구를 위한 교육 제안
문수경(2020)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기독교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를 목적으로 영성 원리에 기반한 영성 교육, 성찰성 원리에 기반한 역량강화 교육,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한 지역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
김정희 · 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소수자인 기독 노인을 위한 미디어 기반 교육목회적 방안을 해리스의 5가지 교회생활 커리큘럼을 토대로 제안
박은혜(2021)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해 지적인 차원에서 성경적 신학적 하나님 개념 교육과 지속적 성숙이 필요한 존재로의 인식교육, 정서적 차원에서 하나님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한 성찰및 왜곡된 이미지 치유 교육, 행위적 차원에서 부모와 조부모 역할 교육과 삶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교육 제안
박미경(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 인식과 기독교노년교육 연구	긍정적인 사회 자원으로서의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참여 및 학습욕구를 고려한 기독교교육과 세대공동체교육 강화 제안

선행연구의 연구 목적 및 결과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통합적 기독교교육 제안 연구, 교회 노인 목회방안 제안 연구, 대안적 기독교교육 모형 제안 연구가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원리를 제안하고 있었고, 기독교교육 현장

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첫째, 노인을 위한 통합적·포괄적·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제안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정준(2009)은 노인의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적 교육모형을 제안하였고, 이정관(2014)은 노인의 전인적 필요를 채우는 포괄적인 사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성(2014)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 목회정책을 제안하였다. 조은하(2019)는 신체적·인지적·관계적·영적 차원을 포함한 교육생태학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수경(2020)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영성·성찰성·연대성 원리에 기반한 교육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회 노인목회의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갑수(2010)는 노인 면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회의 목회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정준(2017)은 21세기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연대와 희망과 참여를 목회의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김정희(2018)는 한국교회가 연령주의에서 연령 통합적 시각과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은혜(2021)는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인지·정서·행위적 차원의 교회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정희·박은혜(2021)는 코로나 시대의 기독 노인을 위한 미디어 기반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미경(2022)은 액티브 시니어로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학습욕구를 고려한 기독 교교육과 세대공동체 강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대안적 기독교교육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인을 위한 대안적 기독 교교육모형으로 제안된 내용은 탈인습성에 기초한 노년기 교육과정(김진영, 2015; 문수경, 2018), 기독교 노인을 위한 죽음교육(이원일, 2010; 이은성, 2014; 장신근, 2018),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오경석, 2018)이다. 이은성(2014)은 기독교 노인 죽음준비교육 활성화화를 위한 과제를 연구하였고, 이원일(2010)은 죽음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장신근(2018)은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문수경(2018)은 노인 학습자가 책임 있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 내러티브를 통해 실천적 삶 속에서 상호적 연대성을 지향할 수 있는 관계적 교수-학습 과정,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는 비위계적 형태를 지향하는 교육, 자아통합성을 증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문수경이 제안한 교육은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관련 있는 연구는 오경석(2015)의 자서전 쓰기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오경석(2015)은 통합적 기독교 노인교육의 대안으로 자서전 쓰기를 제안하였다. Birren과 Deutchman(1991)이 제안한 10가지 주제-인생의 갈림길, 가족, 직업과 경력, 돈의 역할, 건강과 신체상, 성 정체성·성역할·성적 경험, 죽음, 사랑과 증오, 삶의 의미, 예술-에 신앙과 미래를 추가하고 예술을 삭제한 주제를 회기별로 제시한 12주차 프로그램을 제

안하였다(오경석, 2015). 그러나 기독교교육으로서 자전적 글쓰기의 교육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Ⅲ. 노년기 신앙교육의 목적: 신앙내용의 성찰과 소명의 탐색

노년기 삶의 과정과 내용이 개별화되고 다양하기에 노년기 신앙교육은 개인의 신앙의 내용을 기술하고 성찰하고 해석하는 질적 접근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원일(2010)은 기독교성인교육의 목적은 담화 즉 내러티브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어 이해하고 가치 있는 성인기를 탐구하기 위해 소명을 발견하고 확대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파울러의 주장을 중심으로 노년기 신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신앙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에 포함된 신앙 내용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개인 정체성 이야기(personal identity narrative)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가를 말해준다(Osmer, 1995). 파울러(1987)는 신앙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것들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을 부여하며 삶을 함양시켜 주는 주된 이야기들 및 가치와 힘의 중심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없을 것이다(Fowler, 1987, 438.).

그렇다면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가? 파울러가 위에서 말한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삶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이야기, 그리고 힘의 중심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자기 삶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쓰고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파울러는 신앙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Fowler, 1987).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는 가치의 중심(centers of value), 힘의 이미지(image of powers), 중심 이야기(central stories)이다. 첫째, 가치의 중심이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명분, 관심사, 그리고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있는(worthy) 대상에게 충성하고 헌신, 곧 예배한다(worship). 둘째, 힘들의 이미지란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정돈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의존할

만한 힘의 이미지를 말한다. 우리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안정 혹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제후하려고 애쓰는 힘의 이미지가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중심 이야기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로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패턴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즉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심 명제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표 2〉 신앙 내용의 구성 요소(Fowler, 1987)

가치의 중심	centers of value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명분, 관심사, 그리고 사람
힘의 이미지	image of powers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정돈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의존할 수 있는 힘의 이미지
중심 이야기	central stories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로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패턴이 반영된 이야기

신앙 내용의 성찰을 통해 신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의 중심과 힘의 이미지가 재형성되고 중심 이야기가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볼 수 있다. 파울러(1987)는 램보(Lewis Lambo)의 회심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회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회심은 가치와 힘에 대해 갖고 있던 이전의 의식적, 무의식적 이미지들에 대한 의미심장한 중심의 재형성이요, 새로운 해석과 행동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된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전 생애 발달을 연구했던 에릭슨(1994)은 노년기는 통합성과 절망의 위기가 놓여진 시기로서,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면 지혜를 덕목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에릭슨에게 성숙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통합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통합적 감각은 죽음과 노년을 마주할 때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노년기 기독교인이 전 생애의 신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 힘, 중심 이야기를 성찰하는 과정은 전 생애를 수용하는 통합적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노년기 신앙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퇴직 등의 사회적 역할 상실은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질문은 곧 소명의 질문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소명의 상실은 노년기 삶의 의미상실로 인한 절망에 이르게 한다. 직업적 역할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명의 탐색이 필요하다.

파울러(2018)는 신앙의 완성 즉 성숙의 이미지는 획득하고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궁극적인 환경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의 순례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사랑하던 내가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이동하는 것, 이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완전함을 향한 지속적인 성장은 성령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능하다(Fowler, 2018).

성숙한 인간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 가능성의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할까? 인간의 완성과 전체성은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 고전 이야기와 비전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인간의 완성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반자가 되기 위해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Fowler, 2018, 145-146).

파울러(2018)는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성인의 소명을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로 해석한다. 즉 소명은 한 개인이 그의 종합적인 자아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자 관계로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았다(Fowler, 2018). 파울러는 니버(H. Richard Niebuhr)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 메타포를 통해 기독교적 소명의 의미를 설명한다. 세 가지 메타포는 창조, 통치,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이다. 파울러(2018)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 안에서 사람들과 사회를 회복시키고 재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관점을 통해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파울러가 제시한 성인의 세 가지 기독교적 소명은 <표 3>과 같다.

<표 3> 파울러의 기독교적 소명 이해(Fowler, 2018)

<p><b>창조자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b></p>	<p>창조자 하나님의 인간과 환경-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지구와 영적 환경으로서의 문화를 포함한-의 돌봄의 생태학의 유지와 확장에 관련되는 것</p>
<p><b>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동반자 관계</b></p>	<p>하나님의 통치를 침략하려는 충격과 기대 아래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는 구조로서의 활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으로 믿고 소망하고 행동하며 회개하는 것</p>
<p><b>하나님의 해방과 구원행위의 동반자 관계</b></p>	<p>출애굽과 성육신의 해방과 구원의 과정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소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p>

## IV. 노년기 신앙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전적 글쓰기

### 1. 회고하기와 체험의 재해석

노년기에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체적, 감각적 노화를 겪으며 지난 날을 돌아본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울해하면서도 대부분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이혜경, 2019). 자전적 글쓰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글쓰기로 부정적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있다.

노인의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과거 기억과 경험을 소재로 한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현재의 나'이고,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소재는 '과거의 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의 과정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대면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쓴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듯이 엄밀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과 다르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떠올려 기록하는 과정은 곧 현재의 나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해석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떠올려지고 들려질 때마다 새롭게 이루어진다.

노년기의 자전적 글쓰기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적인 이야기로 부활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나약하고 불안한 현재의 자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담론적 실천 행위이다(임순철·김예란, 2015). 이들에게는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과 사건을 포함하여 지나온 삶의 의미를 통합하고 남겨진 삶의 방향과 목적을 통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신앙은 노년기의 우울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통찰함으로써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2018년 연구자가 공동 강사로 참여했던 부천인생학교 [신중년 기억소환 글쓰기] 프로그램에는 중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인 학습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70대를 앞두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노년(가명)씨에게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4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자전적 글쓰기의 대부분은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하며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쓰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기를 반복하여 완성된 그의 자전적 글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나의 예민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미로와 같이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졌

다...(중략) 나는 하필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중략)  
 남편과의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궁 같은 어지러운 삶이었다.  
 그 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은 실타래를 들려주셨고, 나는 실 뭉치를 들고 무사히 미궁 속  
 을 빠져나왔다. 잔잔한 호수 같은 삶에도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또한 삶의 일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떠한 물결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큰 물결이라도 언젠가는 가  
 라앉기 마련이지. 지나고 보면 물결과 함께 한 시간도, 물결이 가라앉은 그 시간도 그저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할 뿐이다(한동수 외, 2018, 81, 84, 93).

이광경·주영아(2016)는 회상(remembrance)과 글쓰기를 결합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이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과거 수용,  
 현재 삶의 만족, 미래 죽음 수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광경·주영아(2016)가 제안한 12주  
 차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노년기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사례(이광경·주영아, 2016)

주제	주차별 제목 및 내용		
과거 수용 (자기이해와 긍정적 부정적인 과거 경험의 통합적 수용)	① 마음 열기 ④ 사랑받은 나	② 나 어릴 때 ⑤나의 꿈	③ 그림다 친구야!
자신의 삶의 의미발견과 재해석	⑥ 내 생의 전환점	⑦ 나의 사랑과 결혼	⑧ 나의 일과 역할
객관적 자기지각의 확장 죽음의 수용	⑨ 나는 누구인가	⑩ 앞으로의 나는	⑪ 맞이하는 죽음

## 2. 고백적 글쓰기와 자기 이해

비밀

나 말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 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소리는 하지 않아

아흔 여덟 살에도  
 사랑은 한다고  
 꿈도 꾸다고  
 구름이라도 오르고 싶다고 (시바타 도요, 2010)

시바타 도요(2010)의 ‘비밀’이라는 시이다. 그녀는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5세에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장례비용으로 만들었던 표지 없는 시집이 널리 읽혀지면서, 2010년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99세에 자전적 고백을 담은 시집을 출간하게 된다. 시집에 담긴 시들은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했던 깊은 고독과 아픔, 여전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이 담겨진 자전적 글이었다. 자전적 글쓰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죽고 싶었던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의 행위였다. 고백적 글쓰기는 자신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원천이 되었다.

박완서(2004)는 1988년에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는 고통을 겪게 된다.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던 해에 박완서는 자신의 고통을 일기로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상실을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고백하였다. 일기는 1990년 잡지에 연재되었고, 이후 연재된 일기문을 모은 책이 출간되었다. 일기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땅속에 누워 있는 것일까? 내 아들이 어두운 땅속에 누워 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설움이 복받쳤다. 나는 내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곧장 돌진해 들어갔다가 어떤 강인한 저지선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걸 여실히 느낀다. 그 저지선을 느낄 수 없어야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 아들의 생명도 내가 봉숭아를 뽑았듯이 실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어간 게 아니었을까? 하느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박완서, 2004, 22-24).

박완서의 일기문에는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거쳐 성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그녀에게 일기 쓰기는 다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어머니이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자 신앙인으로서 해석하기 어려운 아픔을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한 것이었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마주하고 그 내용을 고백하게 되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되고 자기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이기도 하다. 임순철·김예란(2015)은 자서전을 출간한 적이 있는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자서전을 쓰게 된 동기와 자서전의 의미, 자서전을 통해 얻은 결과에 관한 면담을 했다. 그들은 자서전 쓰기를 통해 한 때 보잘 것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껴안게 되었다고 말한다.

노인에게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쓰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김혜숙(2009)의 연구는 노인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혜숙은 여성을 주변화된 존재로 이해하며 자신의 삶과 몸을 쓰는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모형은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표 5〉 자전적 글쓰기 교육모형(김혜숙, 2009)

1. 혼자 하는 여행	자전적 글쓰기 -창조적 자아성숙을 위한 활동	떠나기, 합류하기, 성찰하고 결단하기, 여행경험 반추하기
2. 함께 하는 여행	자전적 텍스트 나누기 -관계적 자아성숙을 위한 활동	텍스트-나누기, 이야기-합류하기, 텍스트-나누기 과정의 반추
3. 다시 혼자 하는 여행	자전적 글쓰기 -통전적 자아성숙을 위한 활동	-

### 3. 자기 목소리의 공명과 연대

자전적 글쓰기에 참여한 노인들이 자신들의 글쓰기 경험의 의미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자신감을 얻고 타자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었다(임순철·김예란, 2015). 이해경(2019)은 노년기의 위기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향한 상상력의 결핍, '실천'과 '인정'의 결핍으로 인한 무기력감이라고 보았다. 자전적 글쓰기는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타자 공동체와 소통하고 세계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실천이다(이해경, 2019).

이봉희(2013)는 취약계층, 무학,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시 읽기와 모방 시 쓰기,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통합적 문학 치료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연대망이 취약한 독거 노인들은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고, 누군가 자신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불과 10주간의 자전적 글쓰기에 참여한 노인들은 신체적 건강회복과, 우울증 경감, 더 나아가 신앙적 회복이

라는 전인적 성장의 결과를 얻었다(이봉희, 2013). 10주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6>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6> 취약계층, 무학, 독거 노인 대상 문학 치료(이봉희, 2013)

주차	주제	학습 내용
1	마음 열기 나와 내 몸 탐구하기	기분을 낙서로 그리며 긴장 완화/ 자화상을 그리며 통증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2	마음 열기/ 자아 탐구	기분/ 감정을 그림과 언어로 표현하고 구조화된 자아탐구 시 쓰기
3	내 삶의 여정/ 이정표	인생의 사건을 기억하고 의미를 찾게 함/ 자랑스러운 일을 기억해내고 상장을 읽고 격려함
4	지배적 감정다루기 1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시 천상병의 [나무] 낭송하기
5	지배적 감정다루기 2	불안, 신경질, 우울함, 걱정, 억울함을 탐구하는 구조적 글쓰기와 이야기하기
6	과거의 회환 풀기 긍정적 과거 기억하기	아픈 곳 그림그리기/ 과거의 잘한 일 쓰기
7	중간 건강점검 자기존중감 고취	혈압과 우울증 체크/ 영화 [미운오리새끼] 보여주고 자기 이야기하기
8	칭찬해주기 자화상 그리기2	스스로 칭찬하기/ 서로 칭찬해주기/ 이름 불러주기/ 자화상 그리기/ 시 함께 읽기(김춘수의 [꽃] 등)
9	재양육, 자기 강화, 창조의 즐거움, 죽음 직면	그동안의 작품 보여주기/ 시 [발자국],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읽고 시 짓기
10	아름다운 소풍-소망 강화, 시 짓기	안아주며 칭찬하고 사랑 고백하기/ 시[귀천]의 모방시 짓기

#### 4. 질적 연구로서 자전적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는 질적 연구의 전통을 따른다. 따라서 자전적 글쓰기의 방향과 관점은 질적 연구의 전통에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조용환(2022)은 질적 연구의 일곱 가지 특징을 통해 질적 연구가 지향하는 이론적 태도를 설명한다. 질적 연구의 일곱 가지 특징은 <표 7>과 같다.

<표 7> 질적 연구의 특징(조용환 외, 2022)

기술적(descriptive)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사물, 사태의 배경과 상황과 맥락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태생적(native)	내부자, 즉 연구 참여자 관점의 현장의 생활세계와 현저인 고유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총체적(holistic)	참여자가 온몸으로 살아가며 머무는 곳과 관계를 최대한 살펴봄으로써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분절하지 않고 맥락 속에서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연구한다.

<b>체험적(lived-experience)</b>	일반적인 경험의 과학이 아닌 개별적인 한 사람이 살아낸 고유한 체험의 현상학을 지향한다.
<b>공감적(pathic)</b>	연구 참여자의 희노애락, 특히 상심과 고통에 동참하는 공감적 태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열어보이는 존재를 이해한다.
<b>해석적(interpretive)</b>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야기를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이해하고 공감할 이야기로 만들어 더 나은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b>개방적(open-ended)</b>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의 작업으로, 모든 연구 과정이 열려있는 대화이다.

자전적 글쓰기는 연구자인 자신이 연구 참여자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이다. 자전적 글쓰기는 연구자로서의 연구자와 참여자로서의 연구자가 함께 세계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22). 자전적 글쓰기가 다루는 자기-내러티브는 한 개인의 개인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야기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자전적 글쓰기는 자기와 타자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Chang, 2008).

인간은 복잡한 삶의 맥락을 가진 존재이며, 질적 연구는 복잡한 삶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경험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기술, 분석, 해석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낯선 것과 만나기, 나를 떠나기, 타자되기, 되돌아보기, 다시 살기의 과정이다(서근원, 2013). 즉 질적 연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유보하고 새롭게 다시 찾는(re-search) 과정이다. 자전적 글쓰기와 관련된 질적 연구 방법은 자문화기술지,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탐구이며, 각 접근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자서전과 문화기술지를 합쳐서 구성한 용어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자서전(autobiography)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방법론적 특성과 장점을 결합한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주관성과 반영성을 연구의 전경에 두면서도, 특정한 사회문화 상황 속에 처한 자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이해를 확장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Chang, 2008).

내가 겪은 과거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둘러싼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등과 연결하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 공유될 수 있다. 노인의 자전적 글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시간을 담아낸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해내고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생애사가 학문적 가치를 가지려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맥락과 연관시켜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생활세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삶이 놓인 세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동 연구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가 이야기한 자기 내러티브가 현장 텍스트로 기술되고, 공동의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 텍스트로 구성된다.

## V. 노년기 신앙교육으로서 자전적 글쓰기

지금까지 살펴본 노년기 신앙교육의 교육 목적과 내용 및 방법, 교수-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목적은 파올러(J. W. Fowler)의 신앙 연구에서 도출된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앙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가치의 중심, 힘의 이미지, 중심 이야기를 기술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례의 삶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소명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교육 목적이 담고 있는 신앙의 세 가지 요소와 하나님의 행위와의 동반자로서의 소명이 한 축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자전적 글쓰기의 절차적 행위가 교육 내용이자 방법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자전적 글쓰기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회고하기를 통한 체험의 재해석, 둘째, 고백적 글쓰기를 통한 자기 이해, 셋째, 자기 목소리 공유를 통한 연대와 수용의 경험이다.

교수-학습 원리는 교사의 교수 원리와 태도, 글쓰기의 태도와 관점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자전적 글쓰기의 이론적 기반인 질적 연구의 일곱 가지 특징이 그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징은 기술적, 태생적, 총체적, 체험적, 공감적, 해석적, 개방적 원리로서, 본 교육과정은 이에 기반한 교수-학습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노년기 신앙교육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의 요소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노년기 신앙교육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 요소

요소	요소별 내용		
교육 목적	신앙 내용의 성찰	기독교적 소명의 탐색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의 중심</li> <li>• 힘의 이미지</li> <li>• 중심 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자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li> <li>•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동반자 관계</li> <li>•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행위의 동반자 관계</li> </ul>	
교육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고하기와 해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백적 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하기를 통한 공명과 수용</li> </ul>
교수-학습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descriptive)</li> <li>• 체험적(lived-experien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생적(native)</li> <li>• 공감적(pathic)</li> <li>• 개방적(open-end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체적(holistic)</li> <li>• 해석적(interpretive)</li> </ul>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의 학습자 구성 및 운영 형식은 교사의 역량과 학습자의 연령과 요구, 교육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자전적 글쓰기를 운영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 혹은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 정보는 〈표 9〉와 같다. 참여할 학습자의 연령과 인원, 운영 회기 등이 다양하였다.

〈표 9〉 노인 자서전 글쓰기 교육과정 운영 형식 사례

프로그램명	학습자	운영 형식	기관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60세 이상 40명	매주 1회 3시간씩 24회기	○○시 노인복지관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만 55세 이상 20명	매주 1회 2시간씩 10회기	○○도서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내 인생의 주인공 인생작가	만 60세 이상 10명	매주 1회 2시간씩 12회기	○○시 ○○구 노인종합복지관
자서전 프로그램	만 60세 이상 10명	매주 1회 2시간씩 18회기	○○시 노인종합복지관
인생 스케치 -미술로 인생을 기록하다	70대 이상 10-20명	매주 1회 2시간씩 32회기	○○시 ○○구 노인복지관
시인과 함께하는 자서전 쓰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다	50-60대 이상 20명	매주 1회 2시간씩 4회기 1개월간 개인 피드백	○○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본 논문이 제안한 노년기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노년기의 과제에 대한 대안적 기독교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절망과 불안의 위기를 겪는 노인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인적으로 표현하는 현재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통합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유리된 노인들이 집단 형태의 모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담긴 글쓰기가 읽혀지고 공유될 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과 현 존재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역할의 상

실과 무력감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나의 목소리로 나에게 관해 말하는 자전적 글쓰기라는 현재적 행위를 통해 의미 있는 실천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과거를 회고하는 현재적 글쓰기는 과거에 관한 현재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을 조망하고 상상하는 미래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 들어감(aging)의 과정을 지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인간은 나이 들어감을 회피하고 부정하며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타자화한다. 시몬느 드 보바르(2002)는 1970년대 노인 인구 분포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프랑스에서 60대의 나이가 되어서 노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이 먹는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불가피한 숙명이며 주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노년이 우리의 이전 삶의 우스꽝스러운 하찮은 모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들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든, 집단이든, 대의명분이든,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일이든, 지적·창조적 일이든, 그 무엇에 헌신하는 길밖에 없다. 도덕주의자들의 충고와는 반대로, 우리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까지도 강렬한 열정들을 오래 보존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 열정들은 우리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하여, 우정을 통하여, 분노를 통하여, 연민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덕분에 삶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행동해야 하는 이유, 또는 말해야 하는 이유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Beauvoir, 2002, 757-758).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행위로서 자전적 글쓰기가 다양한 곳에서 다채롭게 시도되어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의 고백과 대화의 현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다(Nouwen & Gaffney, 2014, 21-22).

## 참 고 문 헌

- 김정준 (2009). 노인 기독교교육의 통합적 접근-선교·교육·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14, 191-216.
- [Kim, J. J. (2009). A Study on Integrated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for The Old Adult: missio. education.social welfare. *The Society for Korean Cultural Theology*, 14, 191-216.]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0, 155-199.
- [Kim, J. J. (2017). Korean Society in the 21th Century and New Tasks and Directions for Pastoral Care for Older Generat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55-199.]
- 김정희 (201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6, 209-239.
- [Kim, J. H. (2018). Studies on How Korean Churches Meet the Challenges of an Aged Soc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209-239.]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진영 (2015). 탈인습적 노년기 교육과정 연구. **신학논단**, 80, 111-139.
- [Kim, J. Y. (2015). A Study on Postconventional Curriculum for the Elderly. *Theological Form*, 80, 111-139.]
- 김혜숙 (2009).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1, 341-363.
- [Kim, H. S. (2009). A Study on Christian Feminist Education through Autobiographical Curriculu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341-363.]
- 문수경 (2018).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무연사와 탈인습적 교육과정 연구. **대학과 선교**, 37, 307-343.
- [Moon, S. G. (2018). A Study on the 'non-relationship' death of elders in Aging era and the Postconventional Christianity Curriculum. *University and Mission*, 37, 307-343.]
- 문수경 (2020).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기독교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대학개방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6, 37-75.
- [Moon, S. G. (2020).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Focused on the Role of University Opening. *University and Mission*, 46, 37-75.]
- 박미경 (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노년교육 연구. **신학과 실천**, 82, 667-693.
- [Park, M. K. (2022). A Study on the Aged's Christian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the Aged as Human Resources for Super-Aging Society in Korea. *Theology and Praxis*, 82, 667-693.]
- 박완서 (2004). **한 말씀만 하소서**. 서울: 세계사.
- [Park, W. S. (2004). *Only say the word*. Seoul: Sekesa.]
- 박은혜 (2021).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77-116.
- [Park, E.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77-116.]
- 서근원 (2013).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을 향하여: 수업 어떻게 볼까?** 서울: 교육과학사.
- [Seo, G. W. (2013). *Towar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 How to view a instruction?* Seoul: Kyoyookbook.]
- 시바타 도요 (2010). **약해지지 마**. 채숙향 역. 서울: 지식여행. (원전 2010 출판)
- [Shibata Toyo (2010). *Don't lose heart*. Translator: Cha, S. H. Seoul: Jisikyeohang.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0)]
- 오경석 (2015).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45, 203-225.

- [Oh, K. (2015). A Model Development of Autobiography Writing Church Program for the Elderl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03-225.]
- 이광경·주영아 (2016).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노년학**, 36(2), 295-313.
- [Lee, K. K. & Ju, Y. A. (2016). The Effects of Group Autobiography Program on Ego-Integrity Improvement for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6(2), 295-313.]
- 이봉희 (2013). 취약계층, 무학, 독거노인 대상 문학치료 사례. **문학치료 연구**, 26, 39-77.
- [Lee, B. H. (2013). Poetry Therapy for the Illiterate,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The Life Review : A Beautiful Picnic"-]. *Journal of Literary Therapy*, 26, 39-77.]
- 이원일 (2010). 죽음에 대한 노년기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6, 353-78.
- [Lee, W. I. (2010). A Study to Death Christian Education for Old Adults.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6, 353-78.]
- 이원일 (2011). 성인기 기독교교육에 대한 담화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27, 97-124.
- [Lee, W. I. (2011). A Narrative Approach to the Adult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97-124.]
- 이은성 (2014). 고령화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0, 387-419.
- [Lee, E. S. (2014). Preparing and Educating the Elderly on Death and Problems the Church Fac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387-419.]
- 이은성 (2016). 고령화 한국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161-188.
- [Lee, E. S. (2016). Aging Korean Society and a Welfare Approach to Church Senio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161-188.]
- 이혜경 (2019).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인문도시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어문**, 41, 529-552.
- [Lee, H. K. (2019). Method and Significance of a Program for Writing an Autobiography by the Elderly. *The Journal of Yeongju Language & Literature*, 41, 529-552.]
- 임순철·김예란 (2015). 노년의 자기 재현으로서의 자서전과 정체성 형성. **한국출판학연구**, 41(3), 111-132.
- [Im, S. C. & Kim, Y. R. (2015). Autobiography and self-identification among the elderly people. *Studies of Korean Science*, 41(3), 111-132.]
- 임창호 (2019). 3개 기독교교육 학술지 논문제목에 나타난 주제어 동향분석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13-43.
- [Lim, C. (2019). Analysis of Thematic Trends within Academic Paper Titles in 3 main Korean Christian Education Journa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13-43.]
- 장신근 (2018). 통전적 기독교 노년 죽음교육의 모색. **장신논단**, 50(3), 327-355.
- [Jang, S. G. (2018). Seeking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for Nurturing Holistic Fait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3), 327-355.]
- 조용환·박순용·염지숙·서근원·강대중·서덕희 (2022). **질적 연구 전통별 접근**. 서울: 학지사.
- [Cho, Y. H., Park, S. Y., Yeom, J. S., Seo, G. W., Kang, D. J., Seo, D. H. (202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 Foundation and Tradition*, Seoul: Hakjisa.]
- 조은하 (2019).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교육생태학적 관점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9, 275-304.
- [Cho, E. H. (2019). Christia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Educational Ecology for a Lively Old A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275-304.]
- 한동수 외 14인 (2018). **복사골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파주: 공감마을
- [Han, D. S. et. al. (2018). *Boksakol Peoples' small stories*. Paju: Gong.]
- Beauvoir, Simone De (2002). **노년 : 아이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홍성희·박혜영 역. 서울: 책세상. (원저 1970 출판)

- [Beauvoir, Simone De (2002). *La Vieillesse*. Translator: Hong, S. H. & Park, H. Y. Seoul: Chaek Se Sang Pub.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70)]
- Chang, Heewon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California: Left Coast Press.
- Clandinin, D. Jean, Connelly, F. Michael (2007). **내러티브 탐구 -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강현석·조덕주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1999 출판)
- [Clandinin, D. Jean, Connelly, F. Michael (2007). *Narrative Inquiry*. Translator: So, K. H., Kang, H. S., Cho, D. J. Seoul: Kyoyookkwahaks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9)]
- Erickson, Erik H. (1994). **아동기와 사회 : 인간 발달 8단계 이론**. 윤진·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저 1950 출판)
- [Erickson, Erik H. (1994). *Childhood and Society*. Translator: Yoon, J. & Kim, I. K. Seoul: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0)]
- Fowler, James (1987).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1 출판)
- [Fowler, James (1987).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Translator: Sa, M. J.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1)]
- Fowler, James (2018). **인간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장윤석 역. 서울: YKBooks. (원저 2000 출판)
- [Fowler, James (2018). *Becoming Adult, Becoming Christian: Adult Development and Christian Faith*. Translator: Chang Y. S. Seoul: YKBook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0)]
- Nouwen, Henri J. M. & Gaffney, Walter J. (2014). **나이 든다는 것**. 최종훈 역. 서울: 포이에마. (원저 1974 출판)
- [Nouwen, Henri J. M. & Gaffney, Walter J. (2014).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Translator: Choi, J. H. Seoul: Poiem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74)]
- Osmer, Richard R. (1995).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2 출판)
- [Osmer, Richard R. (1995).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Translator: Sa, M. J.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2)]